



조경수목산책 39

- 불나무(III) -



임경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산촌의 단풍

산촌에 사는 사람에게 단풍은 한층 더 어울린다. 단풍은 주말을 이용해서 대도시를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마련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찾아올 사람들이 없어도 단풍은 여전히 단장을 하고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단풍은 사실을 살펴보면 생명의 종말을 아름답게 꾸며보는 마지막 상황의 연출인 것이다. 단풍 그것은 얼마 안가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썩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찰나에 있다. 우리는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단풍잎과 땅에 떨어진 단풍잎 소위 말하는 낙엽의 사이를 한 상황의 단절로 보지 않고 그것을 연결하고

자 하는 것이다. 단절은 너무나 큰 절망에 이어진다. 연결시켜서 생명의 연장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불경에 공불이색(空

不異色) 색불이공(色不異空)하는 개념의 성립은 단풍의 생리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을의 생리는 화려함에 있다



▲낙엽송숲의 가을예술 1997. 10. 23. 태백산

하기 보다는 소슬함에 더 편을 들고 있다고 보고 싶다. 다음 시 한 구절에서 이것을 맞볼 수 있다.

寂寞山家秋晚暉 적막산가추만휘
門前紅葉掃人稀 문전홍엽소인희

풀이해 보면 이러하다. 산속에 살고있는 적막한 집에 늦은 가을빛이 한가닥 빛나고 문간에 즐비하게 흩어져 있는 단풍잎을 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취가 아닌가.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이요 뛰어난 미술의 작품이 아닐 수 없다. 낙엽인들 단풍이 아니리오 쓸어 무삼하리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싶다.

이때 문간에 흩어져 있는 단풍이 홍엽(紅葉)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녕 붉은 용단의 길이 아닐 수 없다. 용승한 하늘의 대우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낙엽의 철학

낙엽을 그냥두는 묘미도 있으나 이것을 쓸어 정리하는 멋도 있다. 정곡(鄭谷)의 시구의 한 대목에 다음이 있다.

林下聽經秋苑鹿 임하청경추원록
江邊掃葉夕陽僧 강변소엽석양승
숲속 가을의 뜰에는 사슴이 경읽는 소리를 듣고 있고



▲지리산 피아골.
1985. 10. 26
◀붉나무는 미술인가.
1997. 10. 수원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초봄의 잎의 성록은 성(成)과 생(生)에 해당하고 여름의 성록은 왕성한

색양이 비취는 강가에는 승려가 낙엽을 쓸고 있다.

이러한 광경은 신앙의 세계의 한 모퉁이를 방불케 한다. 승려와 사슴과 땅에 떨어진 단풍잎이 뭉쳐서 이 세상과는 좀 거리가 먼 평화의 세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때 왜 승려가 단풍을 걸어 치우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낙엽 위에 사슴이 누워있어도 좋을 것 같다.

낙엽이란 곧 무(없음)의 세계로 가는 앞 단계이고 보면 사라져가는 것도 당연한 것 같다.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이란 생(生), 노(老), 병(病), 사(死)와 같은 맥락으로

생명의 상태, 즉 주(住)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내적으로는 모르는 동안에 늙음(老)이 찾아 들고 있다. 가을의 단풍은 몸의 파괴(壞, 病)를 뜻한다. 파괴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나무의 생리는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단풍잎은 낙엽이 되어 흙으로 되돌아가 공(空, 아무 것도 없는 것) 즉 죽음에 이어진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돌고 돌음을 나뭇잎의 생리를 내다보는 줄거리가 있다. 단풍은 한량없이 화려하지만 그 뒷편의 그늘같은 것도 내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땅에 떨어진 낙엽이 말라서 사슴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葉乾聞鹿行)는 것도 부서져 가는 낙엽을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차원의 경지에 올려놓고 있다. 단풍잎은 나뭇가지에 달려있을 동안에는 나무의 생기와 통해서 존재를 내세울 수 있겠으나 일단 땅에 떨어진 낙

엽으로 된 뒤부터는 주아(主我)를 잃어버리게 된다. 다음의 시구는 이것을 잘 말해준다.

卷卷落地葉 권권낙지엽
隨風走前軒 수풍주전현
뒹굴뒹굴 땅에 떨어진 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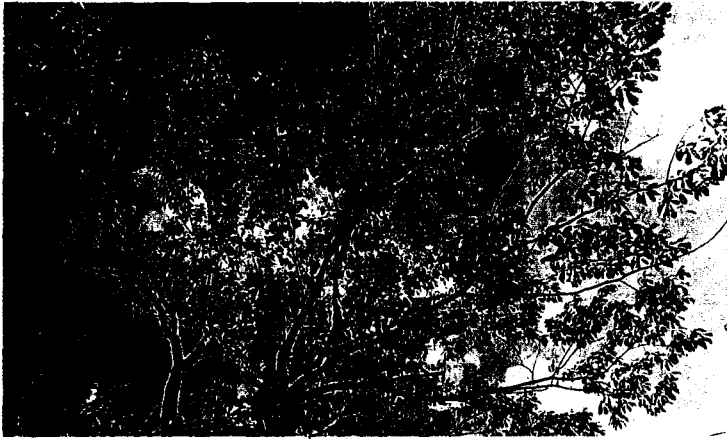
란 시구는 나뭇잎에 대한 존경스러운 대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얼마 안가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 다듬이 소리마저 성화란 말인가.

단풍의 생물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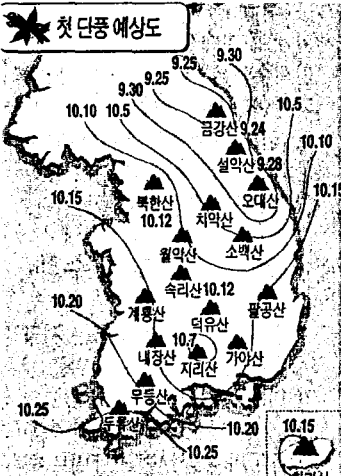
옛 시에 산중무력일(山中無曆日)이란 표현이 있다. 그 뜻은 깊은 산중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달력이 필요한가. 해가 중천에 뜨면 점심 때가 된 것을 알고, 달이 차면 보름인 것을 짐작하며, 진달래가 피면 봄이 온 것을 알게 되고,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게 되면 가을이 온 것을 알게 되며, 눈발이 휘날리면 겨울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 이상 무슨 세월의 흐름을 꼭 알고 지나야 한단 말인가. 정말 산중 무력일이란 산속에 사는 깨끗한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좋은 시구라고 볼 수 있다.

바람따라 앞쳐마 쪽으로 달리고 있다. 이처럼 낙엽은 이제 타의(他意)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불과 찰라의 시간의 벽을 두고 이처럼 큰 변화의 선상에 놓이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늙어가면 별난 것에서까지 치사스러움을 받기 일쑤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판에 왈가왈부했자 소용없다. 음력 9월이 되어 겨울을 대비하는 다듬이 소리가 나무들의 낙엽을 재촉한다(九月寒砧催木

2000년 9월 21일 아침 신문을 받아 들고 나는 다음의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전국 단풍물결 개봉박두'라는 제목하에 단풍의 생물기후를 나타내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이곳에 다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단풍은 그 해의 기상조건에 따라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 평균치를 잡아볼 수가 있다. 지도를 보면 단풍이 처음 찾아오는 때는 금강산이



1. 신갈나무의 가을. 설악산 수렴동 계곡 1984. 10. 20.
2. 은행잎의 가을 영월, 장흥 1997. 10. 21.
3. 2000년 단풍의 생물기후도



9월 24일, 설악산이 9월 30일, 지리산이 10월 7일 그리고 계룡산, 가야산, 내장산이 10월 15일로서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는 약 1주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설악산의 첫 단풍을 9월 하순으로 말했지만 그 절정의 시기는 약 2주일이지난 10월 15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단풍의 생물기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풍이 아름다울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해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적셔보자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러한 단풍생물기후의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의도의 단풍

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20년 이상 살아오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 넓어 은행나무, 벚나무 등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특히 우리집 앞에는 어린이공원이라는 녹지대가 있다. 심어두었던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자라서 이제는 상당한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서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아름다운 대궐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느때가 한 분이 이곳의 가을 단풍을 보고 나를 만나 하는 이야기가 설악산의 단풍이 여의도의 단풍만 못하더라. 단풍을 찾아 설악산에 간

는 그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해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곤 한다. 지난해의 것과 올해의 것에 차이가 그다지 없으나 나는 해마다의 단풍을 사진으로 담아본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꼭 멀리 가야만 찾을 수 있는건 아



1. 모과나무의 미술 1997. 10. 23 불영사근처.
2, 3.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가을. 1998. 11. 27.

다는 것은 당신에게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 분은 우리집 앞의 공원에 심어진 나무들의 단풍을 보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올 가을에도 단풍이 오게 되면 나는 내 방의 북쪽의 창을 열고 깨끗한 햇볕에 반사되는 이 단풍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나

니다. 우리 주변에 아름다움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여기에 그 한 토막을 사진으로 실었다. 우리는 생활 주변을 이와같이 생물적으로 미화를 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느낌에 젖게 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12동 6층에서 북창을 열고 내려다 보는 가을의 단풍은 황홀한 예술의 그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광경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